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2.4 [23~26]

(가)

풍설이 잠간 자고 정계가 고요커늘  
현창을 널니 열고 병안(病眼)을 높이 드니  
만리 건곤의 무한한 청산이  
엇그제 소년으로 백두옹(白頭翁)이 되어세라

(중략)

설산(雪山) 진면목을 여괴와 다 보노라  
어와 조화옹이 변화도 그지없구나  
억만 창생을 사치케 하닷말가  
집마다 경실<sup>\*</sup>이오 섬마다 옥계(玉階)로새  
내 집도 찬란하니 거처는 좋다마는  
선비에게 과분하니 심중이 불안하다  
만가 천향<sup>\*</sup>의 경요<sup>\*</sup>가 낡자하대  
습유<sup>\*</sup>를 아니하니 풍속도 좋을시고  
수레바퀴 흰 때는 쌍으로 비껴가고  
말발<sup>\*</sup>의 은잔(銀盞)은 개개히 두렷하니  
공장의 성녕인가 천하의 기제로새  
공계 위에 새 자최는 야사 황대의  
창힐서가 완전한 듯 석양 한천의  
날아드는 저 가마괴<sup>□</sup> 눈빛을 더러일사  
천지만물 중의 내 홀노 유(類)다르니  
소의 호상<sup>\*</sup>으로 개복(改服)들 하야스라  
정변 대석은 백호가 준좌하니  
이비장<sup>\*</sup> 보듯더면 오호궁을 다렐났다  
고목의 늙은 가지 개개의 옥룡일새  
운우(雲雨)를 언제 얻어 벽공의 오르려니  
네 등을 잠간 빌어 월중계<sup>\*</sup>를 꺾고자나  
유홍이 전심하니<sup>\*</sup> 길병을 다 잊을다  
학창의(鶴氅衣)를 잠간 입고 청려장을 높이 짚어  
바닥 없슨 신을 신고 설리(雪裏)의 배회하니  
맹영이 잇도던들 날도 아니 신선이라 할 거이고

[A]

- 홍계영, 「희설」 -

- \* 경실: 옥으로 만든 집.
- \* 만가 천향: 온 거리.
- \* 경요: 옥구슬.
- \* 습유: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움.
- \* 말발: 말발굽.
- \* 소의 호상: 회고 깨끗한 옷.
- \* 이비장: 한나라 때 흉노를 토벌한 장군.
- \* 월중계: 달나라의 계수나무.
- \* 전심하니: 더욱 깊으니.

(나)

율령천(栗嶺川) 긴 감소<sup>\*</sup>에 뉘대 들고 흘건다가<sup>\*</sup>  
아침밥 종이 먹고 긴 조오름 내었으니  
세상의 변우한<sup>\*</sup> 벗이 이 뜻 알까 하노라

<제2수>

율령천 백구(白鷗)들이 나더러 이른 말이  
인간 시비(是非)를 모르고 늙으소서  
우리는 한 말도 아니되 겁다 세다 하노라

<제14수>

대산 상상봉에 내 혼자 올라와서  
에에쳐<sup>\*</sup> 실컷 울고 생각느니 입이로다

평생에 위군부예정<sup>\*</sup>이야 일각인들 잊으리까

<제20수>

- 강복중, 「수월정청홍가」 -

- \* 감소: 물 웅덩이.
- \* 흘건다가: 흘러 건다가.
- \* 변우한: 번거롭고 걱정이 많은.
- \* 에에쳐: 소리쳐.
- \* 위군부예정: 임금과 아버지를 위한 서글픈 감정.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후렴구를 활용하여 음악적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연쇄의 방식을 통해 대상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직유의 방식을 사용하여 대상의 가치를 나타내고 있다.
- ④ 상승과 하강 이미지 반복을 통해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⑤ 의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2. 가마괴와 백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마괴'와 '백구'는 모두 화자가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대상이다.
- ② '가마괴'와 '백구'는 모두 화자가 과거의 사건을 회고하는 계기가 되는 대상이다.
- ③ '가마괴'는 화자가 위로하는 대상이고, '백구'는 화자에게 공감하는 대상이다.
- ④ '가마괴'는 화자가 권고의 말을 건네는 대상이고, '백구'는 화자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는 대상이다.
- ⑤ '가마괴'는 화자가 속한 심미적 세계를 위협하는 대상이고, '백구'는 화자가 속한 탈속적 세계를 폄하하는 대상이다.



※ 다음을 참고하여 3번과 4번의 두 질문에 답하시오.

선생님 : 가사와 시조 작품에는 화자가 자신의 처지나 이념을 바탕으로 자연을 감상하면서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에서는 병중의 화자가 ㉠ 눈 내리는 풍경을 보면서 초월적 세계를 상상하며 고통을 초극하는 상황이 드러납니다. 한편 (나)에서는 사대부인 화자가 강호에서 생활하면서도 세상에 대한 번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드러납니다. 이러한 화자의 상황을 고려해 각 작품 속에 자연의 의미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3.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학생 1 : (가)의 '현창'을 열고 '백두옹'이 된 '청산'의 변화를 인지하는 상황을 통해 설경을 바라보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자연은 화자가 감상하는 대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 ② 학생 2 : (나)의 '울령천'에서 지내며 '아침밥'을 먹은 후 졸음이 나온 상황을 통해 강호에서 시간을 보내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자연은 화자의 일상적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 ③ 학생 3 : (가)의 '늪은 가지'에 쌓인 눈을 보고 '유홍'이 깊어진다는 상황을 통해 설경에서 감흥을 느끼는, (나)의 '긴 감소'에 '낙대'를 들고 홀어 걷는 상황을 통해 강호를 즐기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자연은 모두 화자의 흥취를 유발하는 공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 ④ 학생 4 : (가)의 '옥룡'을 떠올리며 '질병'을 잊은 것 같다는 상황을 통해 설경을 보고 아픔을 떨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자연은 화자가 고통을 잊는, (나)의 '울령천'에서 '세상의 번우한 벗'을 떠올리는 상황을 통해 강호에서도 세상을 걱정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자연은 화자의 번민이 심화되는 공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 ⑤ 학생 5 : (가)의 '설리'에서 '신선'을 떠올리는 상황을 통해 눈을 보며 초월적 세계를 연상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자연은 화자가 신선을 동경하는 이념이 드러나는, (나)의 '대산 상상봉'에서 '위군부애정'을 생각하는 상황을 통해 산봉우리에서 선비의 본분을 생각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자연은 화자가 지닌 사대부로서의 이념이 드러나는 대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4. ㉠을 고려하여 [A]에 대한 영상시를 제작할 때 학생들이 협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눈으로 덮인 화자의 집이 영롱하게 빛나는 장면을 보여 주면 좋겠어.
- ② 눈이 온 거리에서 풍속에 따라 구슬을 줍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 주면 좋겠어.
- ③ 마을의 집들과 거리가 하얀 눈으로 덮여 있는 장면을 보여 주면 좋겠어.
- ④ 눈이 쌓인 길 위로 말발굽의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는 장면을 보여 주면 좋겠어.
- ⑤ 눈이 내린 거리에 나란히 남겨진 수레바퀴 자국을 바라보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 주면 좋겠어.



**선생님** : 가사와 시조 작품에는 화자가 자신의 처지나 이념을 바탕으로 자연을 감상하면서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에서는 병중의 화자가 눈 내리는 풍경을 보면서 초월적 세계를 상상하며 고통을 초극하는 상황이 드러납니다. 한편 (나)에서는 사대부인 화자가 강호에서 생활하면서도 세상에 대한 번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드러납니다. 이러한 화자의 상황을 고려해 각 작품 속에 자연의 의미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 읽기 전 활동

위의 내용에서는 (가) 시와 (나) 시의 상황적인 특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에서는 '초월적 세계를 상상'한다는 것과 '고통을 초극하는 상황'에 집중하여, (나)에서는 '강호에서의 생활'과 '번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집중하여 읽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가)

풍설이 잠간 자고 정계가 고요커늘  
 현창을 날니 열고 병안(病眼)을 높이 드니  
 만리 건곤의 무한한 청산이  
 엇그제 소년으로 백두옹(白頭翁)이 되어세라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눈보라가 잠시 멈추고 마당이 조용해진 겨울 풍경입니다. 창을 열고 병든 눈을 들고 밖을 내다보니 청산이 엇그제는 소년과 같았지만 어느새 백두옹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년'은 푸르른 산의 모습을, '백두옹'은 하얗게 눈이 내린 산의 모습을 나타내어 눈이 내리기 전의 산의 모습에서 변화된 모습을 화자가 인지하고 색채를 대비하여 비유했다 보면 되겠습니다.

(중략)

설산(雪山) 진면목을 여기와 다 보노라  
 어와 조화옹이 변화도 그지없구나  
 억만 창생을 사치케 하닷말가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화자의 정서·태도 이해하기

화자는 설산을 바라보며 조물주, 즉 '조화옹'의 변화가 억만 창생, 즉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경치를 보는 사치를 누리게 해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의 변화무쌍한 모습을 조물주의 숨씨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집마다 경실\*이오 섬마다 옥계(玉階)로새

내 집도 찬란하니 거처는 좋다마는

선비에게 과분하니 심중이 불안하다

만가 천항\*의 경요\*가 낭자하대

습유\*를 아니하니 풍속도 좋을시고

수레바퀴 흰 띠는 쌍으로 비껴가고

말발\*의 은잔(銀盞)은 개개히 두렷하니

공장의 성녕인가 천하의 기제로새

\* 경실 : 옥으로 만든 집.

\* 만가 천항 : 온 거리.

\* 경요 : 옥구슬.

\* 습유 :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움.

\* 말발 : 말발굽.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화자의 정서·태도 이해하기

화자는 눈이 내린 풍경을 예찬하며 다양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풍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 심화적 독해 태도

계속해서 '옥'과 관련된 표현이 등장하는데, '경실'은 눈이 내려 아름다워진 집을 옥으로 만든 집에, '옥계'는 눈이 쌓여 아름다워진 섬들을 옥섬돌에, '경요'는 눈이 쌓인 모습을 옥구슬에 비유한 것입니다.

모두 눈이 내린 풍경을 '옥'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음을 알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눈을 좁지 않는 것을 옥을 좁지 않는 것과 동일시해 풍속이 좋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눈 위에 수레바퀴 자국과 함께 말의 발자국이 남은 것을 '은잔'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국을 장인의 숨씨인지 천하의 기제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을 보아 이 또한 눈 내린 날의 풍경을 예찬한다는 것 또한 알아야 하겠습니다.

공계 위에 새 자취는 야사 황대의

창힐서가 완연한 듯 석양 한천의

날아드는 저 가마피 눈빛을 더러일사

천지만물 중의 네 홀노 유(類)다르니

소의 호상\*으로 개복(改服)들 하야스라

\* 소의 호상 : 희고 깨끗한 옷.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화자의 정서·태도 이해하기

화자는 저기서 날아드는 까마귀가 온 세상이 하얀데 혼자 검음을 지적하면서 까마귀가 자칫 흰 풍경을 더럽힐까 걱정하여 희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는 흰색과 검은색의 색채 대비를 통해 흰 풍경의 순수한 속성을 더욱 강조했다 볼 수 있습니다.

✓ 심화적 독해 태도

‘창힐서’란 고대 중국의 ‘창힐’이 새와 동물의 발자국을 보고 만든 글자로, 화자는 새의 발자국 모양을 ‘창힐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창힐서’라는 단어로 ‘고사 인용’에 관한 문제 출제 확률은 낮으나, 그래도 중국 고사가 인용되었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정변 대석은 백호가 준좌하니

이비장\* 보듯더면 호호궁을 다랏났다

\*이비장 : 한나라 때 흉노를 토벌한 장군.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정변 대석’을 ‘백호’가 앉아있는 모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고사를 인용하여 이비장이 이 바위를 보면 호랑이인 줄 알고 활을 달라고 말할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② 표현법 체크하기

위의 ‘창힐서’와는 다르게 고사 인용이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으로써, 문제 출제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짚고 넘어가면 좋습니다.

고목의 늙은 가지 개개의 옥룡일새

운우(雲雨)를 언제 얻어 벽공의 오르러니

네 등을 잠깐 빌어 월중계\*를 꺾고자나

\*월중계 : 달나라의 계수나무.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화자의 정서·태도 이해하기

고목의 늙은 가지가 눈이 쌓여 ‘옥룡’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름답다는 뜻으로, 화자는 ‘옥룡’이 비구름은 언제 얻어 하늘에 오를지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화자는 이러한 ‘옥룡’의 등을 빌어 달나라의 계수나무를 꺾고 싶은 소망이 있는데, 이러한 비현실적 소망은 화자의 상상 속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유홍이 전심하니\* 질병을 다 잊는다

학창의(鶴鬢衣)를 잠간 입고 청려장을 높이 짚어

바닥 없선 신을 신고 설리(雪裏)의 배회하니

맹영이 잇도던들 날도 아니 신선이라 할 거이고

- 홍계영, 「희설」 -

\*전심하니 : 더욱 깊이.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화자의 정서·태도 이해하기

시의 앞부분에서 화자는 ‘병든 눈’을 뜬다. 화자는 이렇듯 병에 걸려 있음에도 눈이 내린 날의 풍경을 보는 유홍이 더욱 깊어져 병을 다 잊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병에 걸린 상황에서도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는 것으로써 고통을 초극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작품 총평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으나, 비유적 표현과 고어가 많이 사용되어 내용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크게 겪었을 듯합니다. 이러한 시가가 출제될 경우 별도로 뜻을 주지 않는 고어는 시가의 해석에 별로 비중이 높지 않은 고어가 아니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비유적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확실한 해석이 가능해야겠습니다.

(나)

울령천(栗嶺川) 긴 감소\*에 뉘대 들고 흘건다가\*

아침밥 종이 먹고 긴 조오름 내었으니

세상의 번우한\* 벗이 이 뜻 알까 하노라

<제2수>

\*감소 : 물 웅덩이.

\*흘건다가 : 흠어 건다가.

\*번우한 : 번거롭고 걱정이 많은.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화자의 정서·태도 이해하기

울령천에서 뉘싯대를 들고 걷다 아침을 먹고 낮잠을 자는 여유로운 화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또한, 화자는 속세에 묻혀 사는 벗은 이러한 뜻을 모른다고 말하며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울렁천 백구(白鷗)들이 나더러 이른 말이  
인간 시비(是非)를 모르고 늙으소서  
우리는 한 말도 아니되 겹다 세다 하너다  
  
(제14수)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화자의 정서 · 태도 이해하기

울렁천 '백구'는 화자에게 인간 시비를 모르고 늙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이 한 말도 아닌 것을 두고 겹다 세다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화자가 '백구'를 의인화하여 세태에 대한 화자 본인의 생각을 드러낸 표현으로, 이를 통해 화자는 남의 말에 이러쿵저러쿵 하는 속세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산 상상봉에 내 혼자 올라와서  
에에쳐\* 실컷 울고 생각느니 입이로다  
평생에 위군부예정\*이야 일각인들 잊으리까  
  
(제20수)  
-강복중, 「수월정청흥가」-  
  
\* 에에쳐 : 소리쳐.  
\* 위군부예정 : 임금과 아버지를 위한 서글픈 감정.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인물의 심리 · 태도 파악하기

대산 가장 높은 봉우리에 올라 소리쳐 울고 생각하니 입의 생각이 떠오르는 화자입니다. 화자는 평생 임금과 아버지를 위한 서글픈 감정을 단 한순간도 잊을 수 없다고 이야기 하는데, 이는 화자가 자연 속에서 살고 있으나, 임금에 대한 충성, 아버지에 대한 효와 같은 속세적 가치를 잊지 못함을 드러냅니다. 이는 화자가 속세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음을 나타냅니다.

#작품 총평

자연 속에 묻혀 사는 화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 노래한 시가입니다. 2수와 14수에는 속세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자연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화자의 시선이 드러나지만, 20수에는 임금에 대한 충성과 아버지에 대한 효와 같은 속세에 미련이 남아 있음 또한 드러나고 있음을 중요하게 보면 좋겠습니다.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⑤

① 후렴구를 활용하여 음악적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

→ (가)와 (나) 모두 후렴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② 연쇄의 방식을 통해 대상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 (가)와 (나) 모두 특정 대상을 연쇄적인 방식을 통해 속성을 부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③ 직유의 방식을 사용하여 대상의 가치를 나타내고 있다.

→ (가)에는 비유법이 사용되어 대상의 가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직유법은 아닙니다. (나)에서는 비유법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④ 상승과 하강 이미지 반복을 통해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가)와 (나) 모두 상승과 하강 이미지의 반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⑤ 의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가)에서는 '맹명이 잊도던들 날도 아니 신선이라 할 거이고'라고 질문하며 자신이 마치 신선과 같다고 생각하는 화자의 내면을, (나)에서는 '평생에 위군부예정이야 일각인들 잊으리까'라고 질문하며 자신이 임금과 아버지를 위한 감정을 잊을 수 없다는 내면을 드러냅니다.

2. [가마괴]와 [백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④

① '가마괴'와 '백구'는 모두 화자가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대상이다.

→ '가마괴'는 화자가 눈 내린 날의 풍경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대상이고, '백구'는 화자가 감정을 이입하는 대상입니다. 둘 모두 경외감과 연관성이 없습니다.

② '가마괴'와 '백구'는 모두 화자가 과거의 사건을 회고하는 계기가 되는 대상이다.

→ '가마괴'와 '백구' 모두 과거의 사건 회고와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③ '가마괴'는 화자가 위로하는 대상이고, '백구'는 화자에게 공감하는 대상이다.

→ '가마괴'는 화자가 지적하는 대상이고, '백구'는 화자가 감정 이입을 하는 대상일 뿐 화자에게 공감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④ '가마괴'는 화자가 권고의 말을 건네는 대상이고, '백구'는 화자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는 대상이다.

→ 화자는 '가마괴'에게 온 세상이 하얀데 혼자 검다며 지적하고 '소의 호상으로 개복(改服)을 하야스라'라며 흰 옷으로 갈아입을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백구'는 화자에게 '인간 시비(是非)를 모르고 늙으소서'라며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⑤ '가마괴'는 화자가 속한 심미적 세계를 위협하는 대상이고, '백구'는 화자가 속한 탈속적 세계를 폄하하는 대상이다.

→ '가마괴'는 화자의 눈 내린 날의 아름다운 풍경을 더럽힐 수 있는 존재로 위협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나, '백구'는 화자가 속한 탈속적 세계를 권장하는 대상이지 폄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다음을 참고하여 8번과 9번의 두 질문에 답하십시오.

**선생님** : 가사와 시조 작품에는 화자가 자신의 처지나 이념을 바탕으로 자연을 감상하면서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에서는 병중의 화자가 ① 눈 내리는 풍경을 보면서 초월적 세계를 상상하며 고통을 초극하는 상황이 드러납니다. 한편 (나)에서는 사대부인 화자가 강호에서 생활하면서도 세상에 대한 번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드러납니다. 이러한 화자의 상황을 고려해 각 작품 속에 자연의 의미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3.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 ④

① 학생 1 : (가)의 '헌창'을 열고 '백두웅'이 된 '청산'의 변화를 인지하는 상황을 통해 설경을 바라보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자연은 화자가 감상하는 대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 '헌창'을 열고 하얗게 변한 청산의 모습을 화자가 바라보는 모습이 드러나므로 화자는 자연의 경관을 변했음을 깨닫고 감상하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② 학생 2 : (나)의 '울령천'에서 지내며 '아침밥'을 먹은 후 졸음이 나온 상황을 통해 강호에서 시간을 보내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자연은 화자의 일상적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 '울령천'에서 '아침밥'을 먹고 졸음이 오는 모습을 통해 강호에서 시간을 보내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 가능하며, 아침밥을 먹는 등 자연은 화자의 일상적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맞습니다.

③ 학생 3 : (가)의 '늙은 가지'에 쌓인 눈을 보고 '유홍'이 깊어진다 는 상황을 통해 설경에서 감흥을 느끼는, (나)의 '긴 감소'에 '뉘대'를 들고 홀어 걷는 상황을 통해 강호를 즐기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자연은 모두 화자의 흥취를 유발하는 공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 (가)에서는 화자가 늙은 가지에 쌓인 눈을 보며 유홍이 깊어진다고 말하므로 설경에서 감흥을 느끼고 있는 것이 맞고, (나)에서는 물 웅덩이 옆에서 뉘싯대를 들고 홀어 걷는 화자의 모습에서 강호를 즐기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는 자연이 화자의 흥취를 유발하는 공간임을 뜻합니다.

④ 학생 4 : (가)의 '옥룡'을 떠올리며 '질병'을 잇는 것 같다는 상황을 통해 설경을 보고 아픔을 떨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자연은 화자가 고통을 잇는, (나)의 '울령천'에서 '세상의 번우한 벗'을 떠올리는 상황을 통해 강호에서도 세상을 걱정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자연은 화자의 번민이 심화되는 공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 (가)에서는 '옥룡'을 떠올리며 유홍이 깊어져 병을 잇는 것 같다는 상황에서 화자가 병의 아픔을 설경을 통해 잇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는 자연이 화자가 고통을 잇는 공간임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나)에서 '울령천'을 건너 화자가 '세상의 번우한 벗'을 떠올리는 상황은 속세에 파묻혀있는 화자의 벗은 자연의 흥취를 알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세상을 걱정하는 것과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연이 화자의 번민이 심화되는 공간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⑤ 학생 5 : (가)의 '설리'에서 '신선'을 떠올리는 상황을 통해 눈을 보며 초월적 세계를 연상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자연은 화자가 신선을 동경하는 이념이 드러나는, (나)의 '대산 상상봉'에서 '위군부애정'을 생각하는 상황을 통해 산봉우리에서 선비의 본분을 생각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자연은 화자가 지닌 사대부로서의 이념이 드러나는 대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 '설리'에서 신선을 떠올리며 눈내린 풍경이 마치 신선이 나올 것 같이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초월적 세계를 연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자가 '신선'은 이러한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신선을 동경하는 이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에서는 '대산 상상봉'에 오른 화자가 '위군부애정'을 생각하며 자연 속에서도 임금에 대한 충성과 아버지께 대한 효도 같은 사대부적 이념이 드러납니다. 따라서 자연이 화자의 이념을 드러내는 공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4. ㉠을 고려하여 [A]에 대한 영상시를 제작할 때 학생들이 협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

① 눈으로 덮인 화자의 집이 영롱하게 빛나는 장면을 보여 주면 좋겠어.

→ 눈으로 덮인 화자의 집이 찬란하다는 것을 보아 집이 영롱하게 빛나는 장면을 보여주면 영상의 실감나는 시각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② 눈이 온 거리에서 풍속에 따라 구슬을 줍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 주면 좋겠어.

→ 눈이 온 거리에서 ‘습유를 아니하니 풍속도 좋을시고’라는 것을 보아 땅에 떨어진 남의 물건을 줍지 않는 것이 풍속이 좋다고 보는 화자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눈이 온 거리에서 풍속에 따라 구슬을 줍는 화자의 모습은 글의 내용과 정반대되는 내용입니다.

③ 마을의 집들과 거리가 하얀 눈으로 덮여 있는 장면을 보여 주면 좋겠어.

→ 마을의 집들과 거리에 눈이 온 상황입니다. 하얀 눈으로 덮여있는 장면을 보여준다면 화자가 어떠한 풍경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는지 알기 쉬울 것입니다.

④ 눈이 쌓인 길 위로 말발굽의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는 장면을 보여 주면 좋겠어.

→ 눈 위에 ‘말발의 은잔은 개개이 두렷하니’라며 말발굽의 흔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발굽의 흔적을 영상에 담는다면 시의 내용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⑤ 눈이 내린 거리에 나란히 남겨진 수레바퀴 자국을 바라보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 주면 좋겠어.

→ 눈이 내린 거리에 수레바퀴 자국을 보며 ‘수레바퀴 흰 띄는~ 천하의 기제로세’라며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는 화자입니다. 따라서 화자가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는 장면이 들어간다면 좋겠습니다.